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장승남

(성모병원 간호사)

까만 얼굴에 뚜렷한 이목구비... 첫눈에도 그 순박함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순진한 시골 청년같은 모습, 서00님의 첫인상은 그렇게 기억된다.

첫 진단 때도, 항암 치료를 몇 회 받는 동안에도, 마지막 입원 때도 서00님은 항상 1208호에서 조용한 모습으로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실, 힘들다던 IVAM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까지도 그분에 대해 자세한 걸 알지 못했다. 하지만 늘 어머니와 단둘이 입 퇴원을 반복했고, 가끔 스쳐 지나가며 건네는 말 속에서 그 분에게겐 가정을 걱정하는, 정이 어린 마음이 느껴지곤 했다. 항암 치료 때마다 서00님은 백혈구 저하로 늘 13층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다시 12서로 입원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13층으로 이실 갈 때면 서00님의 얼굴에 늘 그늘이 지곤 했는데 지나고 보니 궁핍한 생활로 인하여 격리병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그 비싼 병실료를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가족에 대한 죄스러움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늘 가벼운 인사 정도로 서00님을 마주했지만 그 순수함과 구수한 정이 가슴에 많이 남는 분이였다.

그러던 중 서00님의 어머니와의 우연한 대화를 통해 가정의 불화, 그리고 생활고에 대한 이야기를 접

하게 되었다. 많은 환자들이 그러하겠지만 직접 얘기를 들으니 비록 혼자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참 안타까웠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마침, 평소 사회사업 활동에 열심하며, 함께 호스피스 연수를 다녀온 터라 잘 알고있는 문선생님을 병동에서 만나게 되었고, 난 걱정스럽게 서00님의 얘기를 건넸다. 문선생님은 진지하게 받아주었고 그 이름을 되뇌이며 환자를 방문해 볼 것을 약속하셨다.

어느날인가, 늘 우울했던 서00님의 얼굴에서 참으로 밝은 웃음을 보았던 적이 있었다. 같은 질환으로 함께 치료를 받는 두 살 위의 환자와 8호실 창가에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장난기 서린 모습으로 크게 웃음을 웃던 모습. 그때부터 밝아지기 시작했다. 제법 농담도 하고 간호사들과도 정을 나누게 되었다.

간호사들도 서00님의 또 다른 모습에 반가와 하며 힘든 과정을 더 잘 극복해 나가길 기도했다.

그때 서00님은 생활고와 아버지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장남으로서 느꼈던 부담감, 왜 나만 이 질병에 걸려야 하나하고 자책했던 그 부정과 분노의 단계를 거쳐 타협하며 대신 열심히 살고 노력하리라는 희망을, 같은 병실 환자의 도움을 받으며 부여잡기 시작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퇴원 하던 날 서00님은 서운하다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했다. 너무 바쁜 터라 대화하지 못했지만 힘든 과정을 잘 이겨 낼 수 있는 분이란 생각이 들었던 말을 했다. 그 날 그분은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여러 간호사들을 기다렸다가 일일이 인사하고 퇴원했다.

그 당시 조혈 모 세포 이식을 하기로 마음먹고 준비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개인사정으로 포기한 터라 많이 실망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머니로선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일이라며 안스럽게 아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시우곤 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마지막으로 외래를 방문하던 때, 서00님이 캔 커피를 내게 건네주며 동전이 500원 밖에 없어 하나밖에 못 주겠다며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

그 이후 서00님이 백혈구 저하증으로 13층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번엔 백혈구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1,000이하의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또한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되자 포기하고 그냥 퇴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얼마나 많이 실망했을까.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아파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그리곤 입원 할 때가 지났는데 소식이 없는 서00님을 궁금해 하며 가끔씩 서00님과 친하게 지내던 환자분을 통해 그분의 소식을 물어 보기도 했지만 절망적인 상태라 서로 연락하기도 조심스럽다며 이야기를 꺼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여느 때처럼 출근해서 환자의 병실을 방문 하던 중 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이 서00님이라고? 간호사들끼리 서로 소근거

리는 소리가 들렸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른 얼굴, 복수가 심하게 차 움직이기조차 힘들어 하는 모습 산소를 공급 받으며 환자는 지친 듯 잠들어 있었다.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였다.

그래도 어머니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틈이 날 때마다 의사와 간호사를 붙잡고 환자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길 바랬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그리고 도와주고 싶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그에겐 힘이 되지 않을 듯 했다. 그저 조용하게 손을 잡아 주며 "힘 내세요"라고 말하거나 자주 환자를 방문하여 힘든 상태를 감지해 주는 것... 처음엔 많이 괴로워하는 것 같아 "통증 조절해 드릴까요?"하면 그냥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통제를 맞곤 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횟수는 증가하였다. 하지만 스스로 참아보려 노력하는 것 같았으며 그렇게 일어서려 애쓰다 점점 자신을 정리하는 모습이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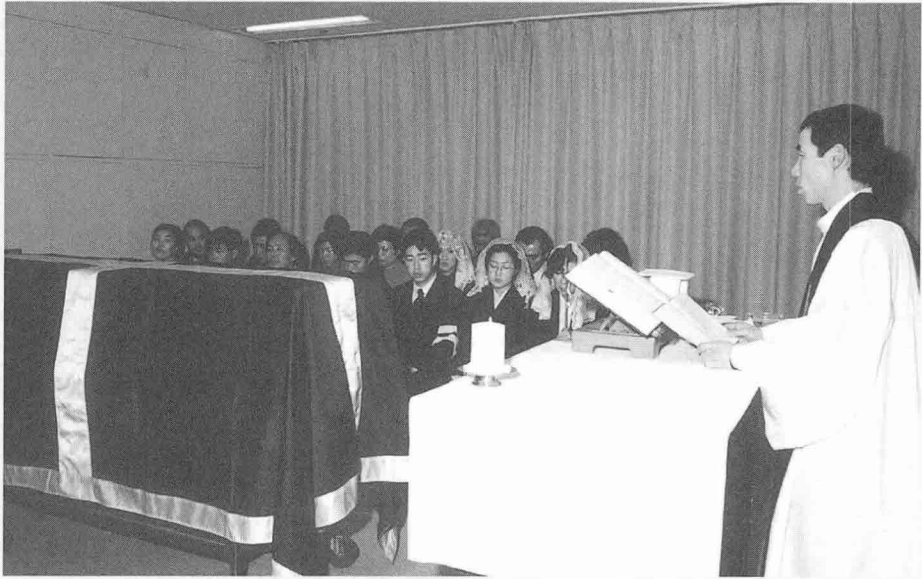
환자는 7호실에서 늘 커튼을 치고 있었는데, 내가 살짝 커튼을 걷으며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면 오히려 더 반갑게 웃어보이곤 했으며 많이 힘들텐데 괜찮다는 말도 잊지 않고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 두 명의 환자가 연이어 같은 병실에서 사망하던 날, 환자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환자가 이상하다 하여 병실에 가보니 심하게 경기를 두 차례 하더니 그 때부터 의식을 잃었고 독방으로 옮긴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운명하였다.

어머니는 가슴으로 아픔을 묻은 듯 차분하였다.

돌아가신 모습이 참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참으로 미안하고 이상한 일은 다른 환자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거나 그



모습을 오래 지켜보지 못했다. 대신 마음속에 오래 남아 내내 우울했다. 참 불쌍한 사람이란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그리고 그 주에 미사를 드리며 그 분을 기억했다. 좋은 곳에서, 아픔 없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웃고 있는 그 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듯 떠올랐다.

마음이 편안했다.

시간이 지나 (보통 6주) 기회가 되면 그 어머니께 전화 걸어 그 이야기를 해 들려야지. 더 아름다운 곳에 아들이 있다고. 환자를 돌볼 때 꼭 '이 사람을 살려 주세요'란 기도를 요즘은 하지 않는다.

많은 죽음을 지켜 보면서 선한 사람들이 지니는

아픔은 이 세상에만 존재 하는 것이 분명하고 생명은 하느님이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